

철학사

04 플라톤의 인식론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오늘 오후에는 플라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플라톤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인식론을 살펴보고, 명목론이 부정하는 바로 그 유명한 형상론을 살펴본 다음, 이 모든 것이 그의 신과 우주에 대한 이해, 인간 영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리학, 사회철학 등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기 위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발전한 두 가지 사상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과학 이전의 우주론, 즉 자연 전체의 질서성에 관한 것 입니다. 회의주의적 소피스트들에게 있어 이는 자연을 지배하는 실재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질문은 과학 이전 우주론의 노력으로 인해 제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했던 또 다른 사고의 흐름은 도덕적 질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도시 국가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정의의 질서, 그리고 개인의 삶을 도덕적으로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인식론적 질문, 즉 도덕적 지식에 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실을 정말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식의 주장과 단순한 의견 사이의 경쟁에 또다시 갇히게 되는 걸까요? 보편적인 도덕적 이상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상대주의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프로타고라스를 기억하시죠? 과학적 우주론적 접근 방식을 취하든, 도덕적 질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든, 지식과 회의주의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 소피스트들에게서, 그리고 물론 소피스트들의 사고방식에 반박하려는 소크라테스의 시도에서도 제기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로부터 그 논쟁을 계승했기에, 플라톤이 덕에 대해 이야기할 때든, 영혼의 향상에 대한 그의 주요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든, 그의 정치 저술에서 도시 국가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든, 혹은 우주론이나 자연의 질서에 대해 몇몇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든, 이 논쟁은 계속됩니다.

모든 영역 에서 동일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방향, 즉 수사학과 변증법의 대립이 플라톤의 사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플라톤의 대화록 중 하나인 『미노』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화체 작품, 미노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며 윤리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미노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질문은, 아마 모든 부모가 묻고, 대부분의 교육자도 묻기를 바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성 교육, 도덕 교육, 도덕적 발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미노는 바로 이 질문, 즉 덕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가르치려면 가르칠 주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주인공 소크라테스를 통해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중간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모호한 결말로 끝맺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수사학으로 무언가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덕이 부족한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이 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사람들, 즉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시민 지도자들과 부모들은 미덕을 가르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특히 그들의 집에서 자라는 아들들을 보세요. 그렇다면 미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도덕 교육에는 단순히 미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절제, 용기, 지혜, 정의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미덕처럼 특정한 미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조차도, 도덕적 발달에는 이러한 미덕들의 본질을 아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미노』에서 바로 그 '더 깊은' 부분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공화국』과 다른 곳에서도 약간의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제기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인식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미노타우로스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미노』와 다른 대화편에서 인식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노』, 『향연』 발췌문, 그리고 『파이돈』 발췌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살펴볼 세 작품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지식과 단순한 의견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의견은 경험에 기반하지만, 경험은 기본적으로 감각 지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정 사물에 대한 감각 지각. 플라톤은 감각 지각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의 선대 철학자들 중 일부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감각 지각은 감각 기관의 상태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보고 있는 대상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특정 대상은 여러 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대상의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감각 지각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불변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가변적인 상대적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해 온 의견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의 또 다른 대화록인 타이테토스에서, 그리고 이 모든 대화록들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적어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타이테토스에서 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논합니다.

감각 지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간단한 단서를 달아 지식이란 우리가 얻는 진리, 즉 잘못된 의견이 아닌 참된 의견, 다시 말해 감각 지각에 기반한 참된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논쟁은 그것조차 완벽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각 지각에만 의존한다면 무엇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 기반한 참된 의견, 즉 참된 의견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는 당연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감각 지각에 기반한 설명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경험뿐이고, 그 경험이 주는 결과가 단지 의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의견을 확정짓기가 어렵다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플라톤의 비유를 빌리자면, 묶어두는 것이죠. 플라톤은 미노타우로스에서 그 비유를 사용합니다. 의견, 참된 의견은 길을 건널 때 전차를 피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제대로 다루려면 끈이 필요해요. 마치 말처럼요.

의견은 묶여 있지 않으면 흩어지기 일쑤입니다.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고정시키는 것은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적인 기교를 부려도, 변증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견이 확고해지거나, 굳어지거나, 단단히 결속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변증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변증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변증법이란, 음,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여 모든 시간과 장소에 적용되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간이나 사물의 조건에 국한되지 않는 상대성을 초월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감각 기관들이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대성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 감각 지각의 상대성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를 향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는 변증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그것을 자신이 '회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 짓는다.

회상. 변증법이 진실을 밝혀내는 방식은 마치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아시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묘사하고, 그 사람의 특징적인 행동 양식을 설명하고,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더라도, 결국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변증법은 특정한 경험을 되살리는 것과는 다른, 실제적인 회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변증법을 통해 당신은 이전 생에서 알았던 불변의 진리, 즉 마음을 되살릴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플라톤은 영혼의 선재성을 믿었습니다. 영혼의 선재성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선천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고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특정한 잠재적 관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잠재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변증법이 그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게 해줄 때까지 말입니다. 즉, 변증법은 영혼의 이전 존재로부터 비롯된 선천적인 지식을 기억해내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 비유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슈툼프도 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딴 것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도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생의 영혼을 동굴 속 죄수에 비유합니다.

알겠죠? 죄수는 동굴 뒷벽만 바라볼 수 있도록 묶여 있어요. 햇빛이 스며들어오고, 동굴 입구에는 불이 타오르며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죄수 앞 벽에 그림자가 나타난다. 끊임없이 변하고,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림자를 정확히 붙잡거나, 고정시키거나, 묶어둘 수는 없다.

알겠어요? 그러는 동안, 당신을 붙잡은 자들은 커다란 몽둥이를 손에 든 채 얼굴을 찌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앞쪽 벽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영혼은 육체에 갇힌 죄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말씀하신 대로 현실 세계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당신에게 보이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희미한 그림자뿐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 상대적이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지요 .

당신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나 보군요. 당신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적절한 질문을 교묘하게 던져서 당신의 기억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그 사슬에서 풀려나 적어도 뒤돌아서서 자신을 가두었던 자들과 이 동굴의 실체, 즉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불분명하죠. 우리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

그렇다면 플라톤이 묘사하는 것은 존재의 영역이 두 가지라는 체계입니다. 두 가지 존재의 영역, 즉 물리적 개별성의 영역과 물리적 개별성의 영역입니다.

보편적 진리의 영역. 현실. 보편적 진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의 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아래의 세부적인 것들에만 갇히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변증법에 참여 해야 합니다 .

이것은 변증법을 필요로 합니다. 동굴에 갇힌 상황에서는 체면을 지키는 수사적 표현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플라톤은 미노 에서 어떤 것의 불변하는 보편적 본질을 기억을 통해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덕의 본질과 같은 것이죠. 모든 기억은 특정한 사례들을 고려함으로써 떠올릴 수 있지만 , 변증법은 수많은 특정한 사례들 에 걸쳐 경험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경험적 일반화는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사점만을 보여줄 뿐이며, 그중 일부는 매우 우연적이고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 지각과 경험적 일반화를 넘어서 , 모든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추상적으로 , 사물의 본질에 대해 생각 해야 합니다 . 변증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의 본질에 대한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는 트라시마코스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가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본질에 대한 가설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변증법은 마침내 정의에 대한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 집니다 .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막대기 두 개, 분필 두 개, 아니면 소위 마른 잉크나 액체 분필이라고 부르는 것 두 개가 길이가 같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을 보고 길이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길이가 같다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는 한, 길이가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막대기는 길이가 같다 "와 같은 판단은 비경험적인 동등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이 개념은 두 막대기의 길이가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도출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경험적인 속성은 아닙니다. 어떤 두 물리적 사물도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완전히 똑같잖아요 . 그러니까, 저 예시는 길이가 같은 사물에 대한 예시인 거죠.

자,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플라톤의 『국가』에서 발췌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향연』에서 플라톤은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본질, 이상적인 아름다움(대문자 B), 그리고 특정한 아름다운 사물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것들은 감각 지각의 대상이다. 그가 말했듯이, 이상적인 아름다움, 즉 대문자 B로 표현되는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포착된다. 우리는 마음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세요? 수학적 증명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때 "아,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요. 네, 감각적 세부 사항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사고의 흐름에 근거해서 추상적으로 아는 거죠. 이해 되시죠? 우리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 하는 거예요 .

자, 『공화국』에서 발췌한 이 부분을 보세요. 다들 한 권씩은 가지고 계시죠? 네, 『공화국』 제7권, 동굴 비유가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두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내가 말했다.

둘 중 하나는 지적인 질서를 관장하고, 다른 하나는 눈의 세계, 즉 감각의 세계를 관장합니다. 따라서 이쪽은 감각의 세계, 눈과 다른 감각기관의 세계이고, 이쪽은 지적인 세계입니다.

좋아요, 지적인 세계와 감각적인 세계. 보이는 것과 지적인 것. 이제 그것들을 마치 두 개의 불균등한 부분으로 나뉜 선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이가 다른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알겠죠? 이쪽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요. 그리고 각 부분을 같은 비율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플라톤의 유명한 나뉠셈 선처럼 네 부분으로 나뉜 선이 완성됩니다 . 좋아요.

보이는 영역과 이해 가능한 영역으로 나누고, 그 둘의 상대적인 선명도와 모호함의 비율을 표현하자면, 보이는 세계의 한 부분으로는, 바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들 말입니다. 즉, 그림자, 물이나 표면에 비친 반영, 그런 종류의 것들 말입니다.

이미지, 그림자, 환상, 환각. 상상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마음속 으로 그려보는 것 말이에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것이 닮거나 형상화된 대상, 즉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공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물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네, 물리적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영역에서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영혼은 구별을 짓는데, 그 구별에 따라 영혼은 이전 영역에서

모방된 것들을 이미지로 여기고, 가정, 이미지,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여 기본 원리로 나아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론과 유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학이 바로 이러한 추론과 유추의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합니다. 수학은 당연히 끊임없이 추론하고, 사물을 추론해내는 학문이며, 그 결과 덧셈과 같은 수학적 관계와 같은 수학적 대상들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학 이후로 모든 수학적 체계와 유추는 기본 원리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추론에 전제되는 기본 원칙들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만약 당신이 그 이미지들을 실제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세부 사항을 다루는 것은 감각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의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크사(Doxa)'는 그리스어로 의견,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관은 그리스어 'doceo'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물론 연역적 추론이 있습니다. 연역,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근본 원리에 대한 지식은 변증법을 통해 얻어집니다. 변증법을 통한 근본 원리에 대한 지식. 네, 그게 그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인물의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에서 그는 변증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해 가능한 것의 다른 부분'이란 이성이 붙잡고 있는 것, 즉 변증법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변증법이란 무엇일까요? 변증법은 전제를 절대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가설, 토대, 기반, 도약대로 간주하여, 어떤 전제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의 출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후, 다시 첫 번째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변증법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 나아간다.

당신이 구상하고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변증법으로 고찰되는 현실과 지성을 예술과 과학의 대상보다 더 진실하고

정확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술과 과학의 대상은 전체가 자의적이니까요. 좋습니다.

그것들을 숙고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아닌 이해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연구의 기초, 즉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747의 맨 위에서, 당신의 해석은 이 네 가지 영역에 답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높은 질문에는 지적인 근거가, 두 번째 질문에는 이해 또는 사색이, 세 번째 질문에는 믿음 또는 지각적 믿음이, 네 번째 질문에는 그림 같은 사고, 추측 또는 환상(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단락은 본문 뒷부분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변증법만이 가설을 없애고 근본 원리 자체로 나아가는 유일한 탐구 과정이 아닌가요? 영혼의 눈이 정통 신화의 야만적인 수렁에 빠졌을 때, 변증법은 부드럽게 그 눈을 끌어올려 위로 인도하며, 우리가 열거한 학문과 과학 등을 조력자이자 협력자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변증론자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와 타인에게 설명할 능력이 없으면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 완전한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 마지막 단락에서 그가 제시하는 설명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치 전쟁터에서 온갖 시련을 헤쳐나가듯, 모든 것을 의견이 아닌 본질적인 실재로 검토하려 애쓰는 그는 추론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선 그 자체도, 특정한 선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변증법이란 논증과 관념을 분석하고, 일관성을 찾고,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는 것을 찾고, 모든 반론, 모든 경쟁자, 모든 반대 주장에 맞서 끊임없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신중하고 정직하며 끈질긴 변증법이라는 시험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진리를 파악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변증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나머지 내용과 함께, 이것은 그가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데이비드.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양을 온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태양은 가장 궁극적인 현실, 존재의 근원, 빛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이해는 나중에야 가능하죠.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플라톤주의가 유대-기독교 전통에 흡수되면서 특정 신비주의 전통이 발전하게 되었고, 태양이 신과 동일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비전, 신비로운 비전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제한적으로라도요? 아니면 내세에서만 가능할까요? 네, 완전히 가능합니다. 네, 칼.

네, 제 생각에 그는 우리가 이미지, 환상, 그리고 개별적인 것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리로 되돌아갈 수 없죠. 우리 사회는 어떤 궁극적이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선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제 생각에 그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겠죠.

맞아요. 네, 제이슨. 아니, 제이슨 맞죠? 팀, 알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는 그래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파두는 영혼의 선재와 불멸에 대한 일련의 논증을 담고 있는 완전한 파두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초기 교회에서는 개인 영혼의 기원에 관해 세 가지 견해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체가 선재했다는 플라톤적 견해, 육체적 생식을 통해 재생산되었다는 견해, 또는 태아 발달 과정 중 어느 시점에 신이 특별히 창조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첫 번째 견해는 플라톤과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두 번째 견해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 전통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인간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죠. 네, 팀.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천적 관념의 변증법적 회상. 네, 변증법이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근본 원리에 대한 선천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회상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변증법은 마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 변증법은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야 . 제시. 응.

네. 아니,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윤리적 문제의 차이점으로 돌아가 보면, 플라톤은 바로 그러한 차이점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덕 질서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의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해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 그런데 한편으로, 그리스 시인들은 정의라는 도덕적 질서에 관심이 없을 때 무엇에 관심이 가졌을까요? 이해 되시죠? 소피스트들은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 데모크리토스를 보면, 그는 영리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닌 쾌락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성공하기 위해 . 인생을 즐기기 위해 . 앞서 나가기 위해.

자, 이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가치관 입니다 . 이 세상과 관련된 가치관 이죠. 이제 여러분은 왜 이것이 종교적 사상에 그토록 매력적이었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나중에는 이슬람교까지. 알 켜어요? 마치 플라톤이 "너희의 애정은 아래가 아닌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초기 교부들을 살펴보면, 플라톤은 그들이 처음 3~4세기 동안 비기독교적 비판에 저항하는 데 있어 주요한 자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주의는 기독교 사상에 흡수 되면서 1200년경이나 1100년경까지 기독교 내에서 지배적인 철학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 매력을 바로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앨런 블룸을 언급하셨잖아요. 네.

시카고 대학교가 자랑하는 고전 연구를 통한 자유 교육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시 말해, 저자는 현대 대학생들이 마치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하지만, 책 말미에 이르러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자신의 처방을 제시할 때는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고전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가치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전들을 읽어보면 매우 다양한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푸리에요. 구내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듬이죠.

제 생각에 그가 추구하는 것은 위대한 책들과의 대화, 즉 대안들과의 비공식적인 변증법적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이끄는 것이죠. 결국 근본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일 겁니다.

음, 아시다시피 저는 기독교 인문학 교육이 그러한 맥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교육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의 위대한 사상가들과의 변증법적 대화에 참여하게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상들을 바라보고 그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합니다. 반면에, 저는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수사학적인 교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그건 수사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죠. 좋습니다. 그의 인식론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플라톤이 지식 추구하고 변증법적 사고를 냉담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순전히 객관화된 지적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선에 대한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적인 영역에서는 진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문제는 사람들이 평생을 사로잡는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근본 원리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역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심포지엄에서는 예를 들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화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에로스, 즉 욕망입니다. 오늘날 에로스와 그와 관련된 단어인 에로틱은 성적인 의미로 좁혀져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로스는 단순히 원하는 것, 갈망하는 사랑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선한 에로스'는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한지 알고자 하는 열망 . 진실에 대한 사랑. 무엇이 참된지 알고자 하는 열망.

보시다시피, 지혜에 대한 사랑,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입니다.

파이드로스를 읽게 될 겁니다 . 그의 또 다른 대화록이죠. 파이드로스 2부에서 변증법과 수사학이라는 주제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강력하게. 좋은 수사와 그렇지 못한 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증법을 통해 얻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수사입니다. 이해되지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선을 추구하게 하려면, 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악순환이 있는 거죠.

선과 아름다움의 이상과 원칙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분명 사랑하게 될 텐데.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악순환이 느껴지지? 마음의 눈으로 보려면 사랑이 필요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없다면 말이지 .

그런 의미에서 욕망, 즉 에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플라톤은 『국가』에서 여러 곳에 걸쳐 두 가지 주요 주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시 국가의 과제가 선한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 그러한 선의 추구를 장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영혼의 수양, 즉 옳고 선하며 진실한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둘째로, 그는 사람들이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교육 제도를 구상합니다.

특정한 감각 경험 보다는 합리적인 질서에 대한 이해를 길러준다고 생각해요 . 네. 신체 운동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가 예로 든 건 군사 훈련이군요. 글썄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군사 훈련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제가 경험했던 군사 훈련이 어땠는지만 압니다.

연병장에서의 훈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안무를 짜인 것처럼 움직였죠. 네. 아, 한동안 미식축구 코치를 맡았던 클리프 쉬멜스가 생각나네요.

그는 언젠가 우리 몇 명에게 선수들이 연습 경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걸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계속 돌려보더니 마치 안무를 짰 춤처럼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알겠죠?

그리고 음악, 네, 음악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질서와 패턴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적어도 플라톤은, 제대로 된 음악이라면 말이죠.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교육의 초기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능력과 이상적인 질서를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 종류의 문학 작품들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사랑을 키우도록 신중하게 선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학이라는 학문은 변증법을 공부하는 데 최고의 준비 과정이죠. 네, 저는 지금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철학을 전공하는 수학 전공자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 사고력이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과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서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분야든 이해할 수 있는 질서 말입니다.

직접 해보면서 그 일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차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번 강연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